17, November, 2025 Vol. 106

| Bi-Weekly |

신영 ESG

" 양자 택일 기로에 선 기업들 "

Contents

ESG essay

신영's View

ESG 탐방 노트
JYP Ent.

ESG ETF 따라잡기
iShares ESG MSCI USA Leaders ETF (SUSL)

ESG News Clipping

ESG essay

ESG & 글로벌 유동성 담당 오광영 T.02)2004-9256 / oh.gwang-young@shinyoung.com

양자 택일 기로에 선 기업들

미국과 EU 간 ESG 규제를 둘러싼 갈등 고조

EU의 CSRD, CSDDD 옴니버스 패키지 최종안 11월 13일 유럽의회 통과

11월 13일(현지시각) 유럽의회에서 EU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과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 관련 옴니버스 안이 최종 통과되어 확정됨. 법안을 발의한 중도 우파 성향의 유럽 의회 내 최대 정파인 유럽국민당(EPP)은 극우 성향 정치단체인 '유럽을 위한 애국자'(PfE), '유럽보수와개혁'(ECR)과 손잡고 EPP의 전통적 연대 세력인 중도파와 좌파의 반발을 뿌리치고 찬성 382표, 반대 249표, 기권 13표 등으로 통과시킴.

유럽연합(EU)은 지난해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과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법안을 채택해 기업들에 ESG 관련한 정기적인 공시 의무를 부여하고,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환경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자세로 관리 할 것을 요구 했었음. 해당 지침은 환경단체와 인권단체 등으로부터는 환영 받았지만, 유럽 기업체들과 회원국들은 과도한 규제가 미국, 중국과 치열한 경쟁을 하는 유럽 기업들의 경쟁력을 훼손한다면서 해당 법의 완화를 지속해 요구해 왔었음. 이에 올해 1월 29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2기 EU 행정부의 핵심 정책인 '경쟁력 나침반' 정책을 발표하며 규제 완화 방향을 발표함. 2월 26일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를 간소화하는 포괄적인 입법 개정안인 옴니버스 패키지(Omnibus Package)를 발표했으며 이후 많은 협의 끝에 이번에 CSRD와 CSDDD 법안이 최종 확정된 것임.

도표 1. EU의 ESF 규제 준수 요구하는 플로리다 법무장관인 James Uthmeier

자료: ESG투데이,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CSRD와 CSDDD 모두 적용 대상 기업이 80% 이상 대폭 감소함

이번에 통과된 안에 따르면 기존에 비해 CSRD와 CSDDD 모두 적용 대상 기업이 80% 이상 대폭 감소함. 먼저 CSRD는 적용 대상 기업이 직원 수 1,000

명에서 직원 수 1,750명으로 상향 되었으며, 매출액 4억 5천만 유로라는 새로운 기준이 추가됨. 또한 CSDDD 적용 대상 기업은 직원 수 100명 매출액 매출액 4억 5천만 유로에서 직원 수 5,000명, 매출액 15억 유로 이상의 대기업으로 제한해 적용 대상 기업 수가 대폭 축소됨. 여기에 기업들이 부담스러워 했던 '녹색 전환 계획' 의무 제출 조항도 삭제됨.

ESG 관련 법안이 완화되었지만 미국의 정치적 반발이 한층 강화되어 향후 이 법안들의 시행이 되고 제대로 작동 할 수 있을 지 의문의 제기됨

이처럼 기존에 비해 대폭 완화된 규제로 인해 유럽 내 좌파와 환경 단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임. 한편 완화된 안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치적 반발은 한층 강화되어 향후 이 법안들의 시행이 되고 제대로 작동 할 수 있을 지 의문의 제기되고 있음.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 달 29일(현지시각) 미국 상공회의소(US Chamber of Commerce), 전국 제조업협회(NAM), 미국 자본형성협의회(Capital Formation Council)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비롯한 백악관 내각 구성원들에게 공동 서한을 보내, EU가 추진 중인 CSDDD의 적용을 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함. 언론에 따르면 서한에서 'CSDDD는 EU 사법권을 미국 기업에까지 확장하는 것으로, 사실상 주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EU의 수정안인 옴니버스 패키지에 일부 완화 조항이 포함되긴 했지만, 치외법권 문제는 전혀 해소하지 못했다'고 주장함.

미국 16개주 법무장관들은 글로벌 빅테크 CEO들에게 서한을 보내 EU의 CSRD, CSDDD를 불법적인 규제로 규정하고 규제 준수 거부를 요구함

뿐만 아니라 지난 4일(현지시각) 미국의 16개 주 법무장관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을 향해 유럽연합(EU)의 주요 지속가능성 규제인 CSRD 및 CSDDD 준수 거부를 공개 요구했다는 보도가 있었음. ESG 투데이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법무장관인 James Uthmeier를 비롯해 공화당 주도인 16개 주의 법무장관들은 글로벌 빅테크 CEO들에게 서한을 보내 EU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과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 에 대한 집단적 우려를 표명하며 해당 법안이 미국 기업에게 유럽의 ESG 및 DEI 의무를 따르도록 요구하는 불법적 법안이라면서 규제 준수 거부를 요구했다고 전함.

서한에 서명한 16개 주는 플로리다, 앨라배마, 알래스카, 아칸소, 조지아, 아이다호, 아이오와, 캔자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몬태나, 네브래스카,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사우스캐롤라이나, 텍사스 등으로, 이들 주는 트럼프 행정부의 'anti-ESG' 흐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곳으로 공화당이 장악한 주임.

법무장관들은 이들 EU ESG 규제들이 미국에서 반독점법 위반 우려와 사기성 거래 관행 소송을 포함한 수많은 법적 위험에 노출될 것이라며 'EU의 규

제 준수 시 소송 및 정부 집행 조치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함. 또한 법무장관들은 미국의 파리 협정 탈퇴에도 불구하고 이 EU의 ESG 관련 규제는 기업들이 파리 협정 등을 준수하도록 해 협정 의무를 민간 기업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난함.

미국 16개주 법무장관들은 단순히 규제 준수 거부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구체적인 대응 조치를 보고할 것을 요구함

특히 서한에서 법무장관들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의 ESG 및 DEI 활동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해당 회사들이 다양성 확대, 친환경 투자, 사회공헌 등 유럽식 ESG 모델을 자발적으로 따르고 있다고 지적하며, 여기에 CSRD와 CSDDD 같은 불법적 규제에 굴복하는 것은 미국의 법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경고함. 동시에 이들은 세 기업에게 미국 법률과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즉시 준수하고 CSRD와 CSDDD가 부과한 DEI 및 ESG 지침을 거부할 것을 요구함. 또한 이를 거부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조치를 보고할 것을 요구함.

도표 2. EU의 ESG 규제 준수 거부를 요구하는 플로리다 법무장관인 James Uthmeier

자료: ESG투데이,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글로벌 공급망에 속한 국내 기업들도 미국과 EU의 규제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상황임 →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대응해야 할 것임

글로벌 미디어들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기업 규제 문제가 아니라 ESG를 둘러싼 미국과 EU 간 패권 경쟁의 성격을 띤다고 평가함. 특히 언론은 글로벌 빅테크 3사를 향한 요구는 이전에 이뤄진 anti-ESG 운동과 비슷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함. 공화당 주도의 법무장관들은 글로벌 빅 3 자산운용사인 블랙록, 뱅가드, SSGA를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으며, 주정부 자금을 회수해 압박을 가한 사례가 있었음. 이에 다국적 기업들은 'EU의 ESG 관련 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미국의 법과 정책을 따를 것인가'라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게 되었음. 이들뿐만 아니라 글로벌 공급망에 속한 국내 기업들도 양쪽의 규제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판단임. 이에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효율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여 대응해야 할 것임.

ESG 이벤트 & 신영's View

유럽 트럭업계, "배출 규제 완화해 달라"…2030년 전기트럭 판매 최대 27% 감소 우려

- 스카니아, 볼보, 다임러트럭 등 유럽 주요 트럭 제조사, 인프라 부족과 높은 생산비용 등으로 현행 무배출 트럭으로의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발표
- 이에 교통환경단체 T&E,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경우 전력망 구축, 충전 인프라 확충, 배터리 공급망 강화에 대한 투자 유인 축소될 것이라 우려

Comments

- 유럽, 미국에서 자동차 환경 규제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청이 지속 중
- 지난 9월에는 자동차혁신연합(AAI)이 미국의 2027~2032년형 차량에 적용될 환경 규제가 달성 불가능하다며 규제 완화를 요청한 바 있음
- EV 충전 인프라 부족, 내연기관 차량 대비 가격 경쟁력 약화 등이 배경으로 경기 둔화 시 업계의 요청 수용 가능성이 커질 것

–Analyst 문용권

토탈에너지스 "에너지 전환, 감축효율 중심으로"…'탄소차익' 새 포트폴리오 부상

- TotalEnergies, 에너지 시장의 친환경 전환이 둔화되는 국면에 진입했다고 평가
- 또한 전력 수요는 2050년까지 2배 수준으로 증가하고, 천연가스 산업과 전력 부문에서 가교 역할을 이어갈 것이라고 평가
- 탄소 감축보다 에너지 공급 안정으로 무게중심이 바뀌며, 글로벌 에너지 수요 구조가 화석연료 중심으로 재편됐기 때문

Comments

- 신흥국 저감-선진국 지원을 얼개로 하는 '탄소 차익(Carbon Arbitrage)' 개념을 제시해, 효율적 투자 가능성을 강조
- 당분간 증가하는 전력 수요와 에너지 불안정성 지속되며, 글로벌 화석연료 수요 안정적일 것으로 전망
- 메이저 석유업체들의 친환경 투자/경영 행보 감소하는 추세에서, 친환경 투자의 효율성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판단

–Analyst 신홍주

ISSB, TNFD 기준 기반 자연자본 공시기준 마련...TNFD 협력

- EU 외 자율 공시였던 자연자본 공시 의무화 가능성 커져
- 내년 10월 열리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공시기준 초안 제시 목표
- TNFD 내부에서도 환영의 목소리
- TNFD, 기준서 세부 기술 지침 작업 내년 3분기 이후 중단 예정
- 현재 TNFD 기준 공시 기업 733곳...시총 9조달러 초과

Comments

- ISSB, 기존 발표된 S1이나 S2을 개정을 통한 방식과 완전히 새로운 기준(S3)을 만드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 예정 → TNFD와 ISSB 기준 모두 TCFD의 골격 공유로 작업 용이할 것으로 추정
- TCFD처럼 TNFD도 ISSB에 공시기준에 관한 업무를 2027년쯤 이양하고 활동을 종료하게 될 것으로 전망
- 지속가능성 정보의 측정과 공개, 인증 등을 통합해 나가는 국제적인 흐름의 일부 → ISSB가 자연자본 공시기준을 제시하면 EU CSRD 적용 대상 기업 외에는 자율 공시로 이루어졌던 자연자본 공시가 점차 의무화할 전망

–Analyst 오광영

ESG 탐방노트

게임/엔터테인먼트 담당 김지현 T.02)2004-9964 / kimji-hyun@shinyoung.com

JYP ent.(035900.KQ)

매수(TP 100,000원)

타임지 선정 최고 지속가능 성장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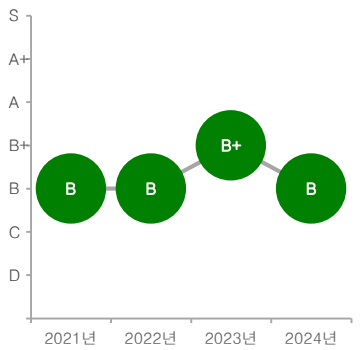
현재주가(11/14) 69,500원

ESG 등급 현황

(평가기관)	ESG	E	S	G
KCGS	B	A	A+	C
Bloomberg	–	–	–	–

주: KCGS :S~D 7등급
Bloomberg: 100 만점 기준

ESG 등급 변화 (KCGS)



Key Data (기준일: 2025. 11. 14)

시가총액(억원)	24,695
배당수익률(25F,%)	0.7
외국인지분율(%)	16.4
주요주주 지분율(%)	
박진영 외 3 인	16.0 %
국민연금공단	6.1 %

Company Performance

주가수익률(%)	1M	3M	6M	12M
절대수익률	-6.0	-12.4	0.6	22.4
KOSDAQ대비 상대수익률	-11.2	-20.4	-17.2	-7.1

Environment

구 분	단위	2023	2024
온실가스 배출량	tCO2eq	1,181	1,493
폐기물 발생량	톤	69	69
환경관련 투자비	억원	536	440
환경경영 인증	–		
환경경영 조직	ESG 위원회		

Social

구 분	단위	2023	2024
안전사고 재해율	%	0.24	0.00
기간제 근로자 비율	%	10.4	9.4
여성 근로자 비율	%	67.5	69.8
사회 공헌지출	억원	11	34
협력사 지원 프로그램	실시 중		

Governance

구 분	내 용
주주총회	2 주전 소집공고 실시
전자투표제	실시
집중투표제	배제
배당 실시 배당기준일	결산배당 (1 회) 이사회 결의
이사회 운영 실적	13 회, 사외이사 출석률 87%

ESG 관련 최신 활동

JYP엔터, 美 타임지 '2025년 세계 최고의 지속가능 성장기업' 세계 3위 선정 (조선비즈, 24.12.04)

- JYP엔터테인먼트는 93.66점으로 유수의 글로벌 기업들 중 세계 3위, 또 한국에서는 1위에 올랐다. 특히 아시아권 중에서는 유일하게 TOP 10위로 평가됨.
- JYP엔터테인먼트는 매출 성장률, 재무 안전성, 지속 가능성 전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달성했다. 특히 친환경 에너지 사용량이 매우 높으며, 탄소 배출량 기준 상위 5% 기업에 속해있다. 한 기업이 모든 카테고리에서 고른 성과를 달성하는 이례적임.

정관에 '지속가능 엔터' 명문화, ESG 전문가도 영입 (더벨, 25.03.18)

- JYP 엔터테인먼트는 정관 전문에 '리더 인 엔터테인먼트를 핵심 가치로 삼아 지속가능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선도하고 고객에게 혁신적인 콘텐츠를 제공하며 원칙을 준수하는 경영을 실천한다'고 기재함.
- 이정민 김앤장 ESG 컨설턴트를 신규 사외이사로 영입함. JYP엔터테인먼트의 ESG위원회는 2022년 설립하였고 위원회에는 전원 사외이사로 구성해 독립성을 유지함.

트와이스 나연-모모-쯔위, 그림책으로 만난 다양함이 존중받는 세상!···JYP ESG 경영 일환 'JYP 4 EARTH' 참여 (스포츠경향, 25.08.11)

- 'JYP 4 EARTH'는 JYP 아티스트들이 더 나은 지구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실천하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긍정적인 시선을 전하는 캠페인임.
- 나연, 모모, 쯔위는 JYP의 대표 CSR 프로젝트 'EDM(Every Dream Matters! : 세상의 모든 꿈은 소중하다)'의 일환으로 2022년부터 이어진 해외 환아 대상 그림책 만들기 활동에 참여함.

ESG history

연 혁	내 용
2020년	[E] 글로벌 환경 네트워크 '1% for the Planet'의 공식 멤버로 참여
	[E] 해양 생태계 보전에 기여하고자 환경 캠페인 'LOVE EARTH CHALLENGE'를 추진
2021년	[E]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 최초로 한국형 RE100(K-RE100)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참여
2022년	[S] 사내 제안제도인 CHANGE 도입, 직위와 직책에 관계없는 의견 제안 수용
	[S] 환아들의 정서적, 교육적 지원을 위한 EDM 그림책 만들기 봉사활동 시작
2023년	[G] 국내 엔터테인먼트 업계 최초로 영국왕립 표준협회에서 부패방지 국제 표준인증(ISO 37001) 획득
	[S]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을 기반으로 위험성 평가 지침 마련
2024년	[ESG] 미국 타임지 선정 "2025년 지속가능 성장기업" 한국 1위, 세계 3위
	[E] 자회사 BLUE GARAGE가 RE100 이행에 동참
	[E] DAY6, TWICE, Stray Kids, ITZY, Xdinary Heroes 등 발매한 모든 아티스트 앨범의 디지털 버전을 제작

지속가능한 문화 생태계를 위한 ESG 경영활동

JYP엔터테인먼트는 'LEADER IN ENTERTAINMENT'라는 비전을 가지고 음악, 아티스트, 팬을 잇는 지속가능한 문화 생태계 구축을 하는 '세상에 좋은 변화를 선도하는 리더'로서의 실행을 핵심 경영 과제로 삼고 있음. 동사는 2050년 탄소중립(Net Zero)을 목표로 설정하고, 사옥, 스튜디오, 공연, 제작 등 전 사업 영역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친환경 인프라 전환을 추진 중임. 신사옥 설계 단계부터 친환경건물인증을 목표로 고효율 제어 및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하고 고효율 조명, 전기차 충전 인프라, 재생에너지 설비 등 다양한 친환경 인프라를 통해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계획임. 특히 2035년까지 Scope 1, 2 배출량을 50% 감축하는 단기 목표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 전략을 수립함. 2024년에는 본사와 자회사 BLUE GARAGE의 전력 사용량(2,149.09MWh)을 모두 재생에너지로 대체함. RE100동참 이후 2024년은 총 1,027tCOeq(이산화탄소 환산톤)만큼의 탄소를 감축함. 본사와 자회사 BLUE GARAGE는 QR코드를 통해 음원과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앨범을 제작하고 MD 제작과 포장재에 환경 친화적인 소재를 사용함. 또한 공연 현장과 물류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 친환경 장비 사용과 물류 효율화를 추진 중임. ESG위원회는 GRI, SASB 등 국제 공시기준에 따라 지속가능성 과제를 정례적으로 점검하며 단순한 친환경 대응을 넘어 지속가능한 K팝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인권, 정보보안, 다양성 강화 활동 지속

JYP엔터테인먼트는 아티스트, 임직원, 팬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PEOPLE FIRST' 문화를 기반으로 인적자본 혁신을 추진 중임.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DE&I(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원칙을 수립함. 다양한 배경을 고려한 임직원 채용 관행을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국적과 인종 등의 배경을 가진 인재들이 아티스트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내외 오디션을 지원함. 또한 디지털 플랫폼 상에서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 관리 및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체계화하여 팬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글로벌 팬 커뮤니티의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함. JYP엔터테인먼트는 ESG 경영을 단순한 사회적 요구가 아닌 기업의 본질적 경쟁력으로 인식하고, ESG 전 영역에서 '지속가능한 K콘텐츠 기업'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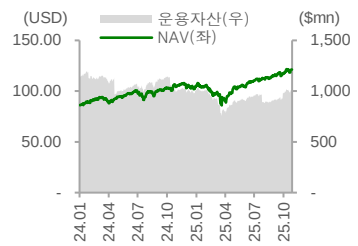
ESG & 글로벌 유동성 담당 오광영 T.02)2004-9256 / oh.gwang-young@shinyoung.com

iShares ESG MSCI USA Leaders ETF (SUSL)

Key Facts	
상장일	2019/05/07
기초지수	the MSCI USA Extended ESG Leaders Index (USD)
구성종목수	273
순자산총액 (백만달러)	991.22
시장가격(USD)	121.04
NAV(USD)	118.71
총보수(%)	0.10
운용사	BlackRock

Top Holdings	(기준일: 2025.11.12)
NVIDIA	15.02%
MICROSOFT	11.47%
ALPHABET CLASS A	5.30%
ALPHABET CLASS C	4.49%
TESLA	3.97%
ELI LILLY	2.60%
VISA CLASS A	1.84%
MASTERCARD CLASS A	1.53%
JOHNSON & JOHNSON	1.49%
AMD	1.33%

NAV와 운용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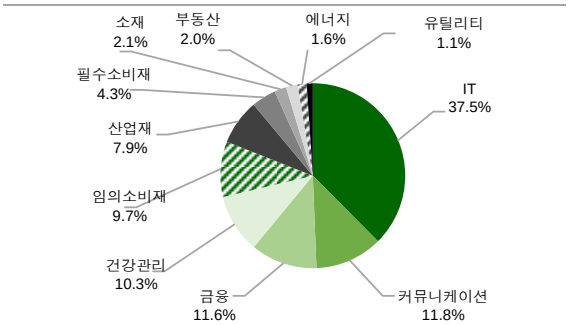
ETF 개요

iShares ESG MSCI USA Leaders ETF (SUSL)는 2019년 5월 상장된 ETF로, 각 부문별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설정해 가장 높은 ESG 등급을 받은 미국 대형 및 중형 기업으로 구성된 the MSCI USA Extended ESG Leaders Index (USD)를 추종하는 ETF임. 기초 지수는 MSCI USA 지수(모 지수)를 기준으로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데 모 지수와 유사한 섹터 정렬과 함께 모 지수의 위험과 수익률을 추종하도록 설계됨. 먼저 모 지수에서 주요 논란에 연루된 기업과 담배, 주류, 도박, 원자력 및 특정 무기 관련 기업을 제외함. MSCI ESG 리더 지수의 확장 버전인 이 지수는 총기 생산업체와 주요 소매업체도 추가로 제외함. 이후 각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구조 관련 ESG 점수가 섹터 및 시가총액 가중치를 고려하여 부여되는데, 이 중 순위가 낮은 기업을 제외함. 이 ETF는 각 섹터별로 시가총액의 약 절반을 선택하여 섹터 정렬을 하며, ESG 등급이 높고 규모가 큰 기업에 집중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투자 포인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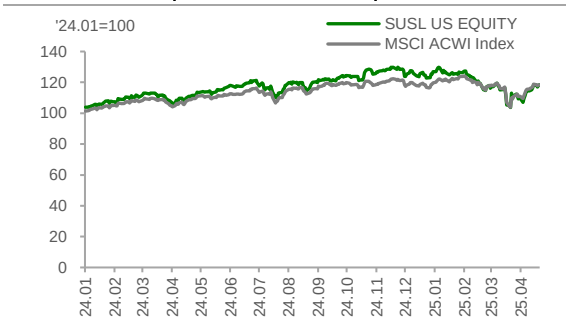
SUSL은 해당 섹터 대비 ESG 특성이 우수한 대형 및 중형 미국 기업에 대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는 ETF임. 미국의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 중 동종업계 대비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등급이 낮거나 논란이 심한 회사에 대한 투자는 피하고 ESG 관행이 우수한 대형 및 중형 기업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에게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음.

SUSL의 업종 구성 비중



자료: BlackRock,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1.12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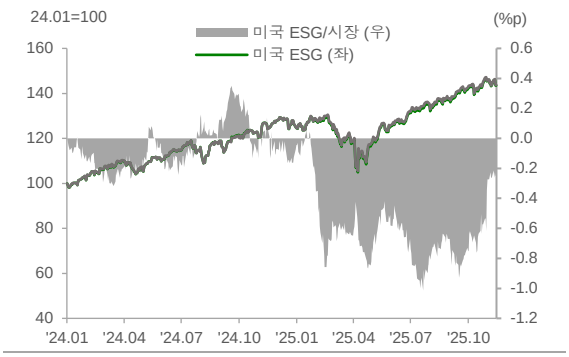
시장과 성과 비교 (MSCI World와 비교)



자료: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1.14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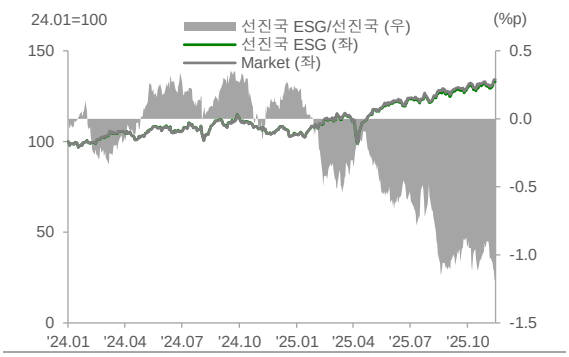
ESG 관련 DATA – 주요 지수 및 ETF의 성과 흐름

미국 주식 ESG (vs.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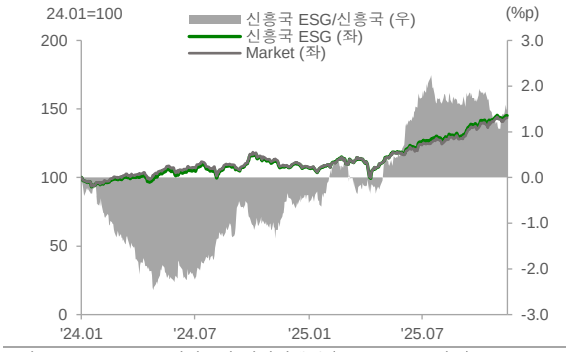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1.14 기준)

선진국 주식 ESG (vs.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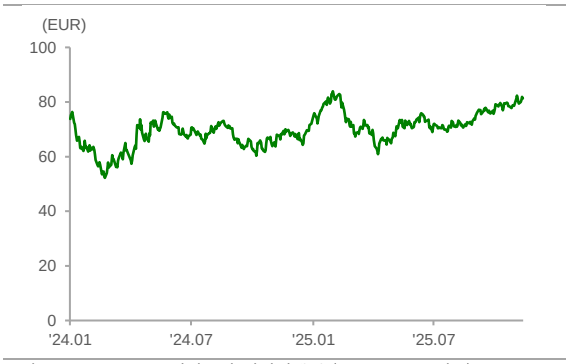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1.14 기준)

신흥국 주식 ESG (vs. 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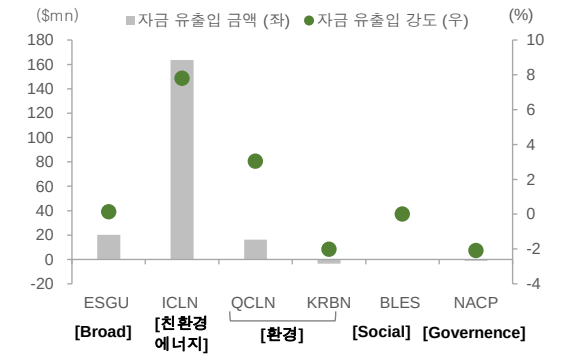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1.14 기준)

탄소배출권 가격 흐름 (EU E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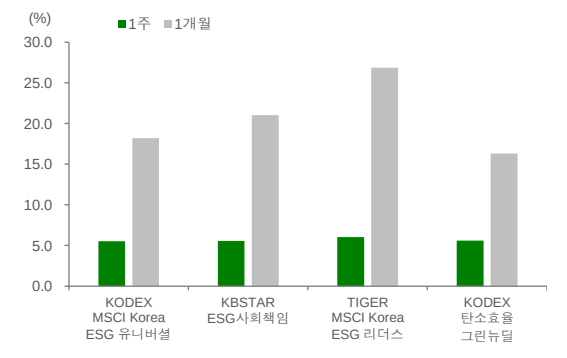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1.14 기준)

미국 상장 ESG ETF 유형별 1개월 자금 유출입 현황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1.14 기준)

국내 상장 ESG ETF들 성과 (1주, 1개월)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1.14 기준)

ESG 관련 DATA - 미국 상장 ESG ETF 현황

미국 상장 주요 ESG ETF의 현황

	구분	AUM (백만달러)	ETF 개수	AUM 비중	ETF 비중
1	Broad	83,439	60	79.2%	61.9%
2	친환경에너지/환경 기업	9,663	13	9.2%	13.4%
3	탄소효율 (Environment)	6,297	13	6.0%	13.4%
4	Social	5,563	5	5.3%	5.2%
5	Governance	402	3	0.4%	3.1%
6	기타	41	3	0.0%	3.1%
ESG 전체		**105,404**	**97**	**100%**	**100%**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1.14 기준)
주1: 미국 상장 ETF들을 전체 유니버스로, ETF 상품 개요 (description)를 기반으로 ESG 관련 키워드 검색 (ESG, Social, Climate, Carbon, Fossil, Environment, Clean, Solar, Green, Renewable, Sustain)을 통해 총 124개를 ESG 전략 기반의 ETF로 판단하였음
주2: 향후 키워드는 변경, 추가될 수 있으며, 정성적 판단 또한 ETF 분류에 반영하였음

미국 상장 주요 ESG ETF의 개요

구분	ETF	ETF	상장일	개요
Broad	ESGU	iShares ESG Aware MSCI USA ETF	2016-12-02	MSCI USA ESG FOCUS 지수를 추적하는 미국 최대의 ESG ETF
	ESGV	Vanguard ESG US Stock ETF	2018-09-20	FTSE USA All Cap Choice 지수를 추적
	SUSL	iShares ESG MSCI USA Leaders ETF	2019-05-09	MSCI USA ESG LEADERS 지수를 추적
	NULV	Nuveen ESG Large-Cap Value ETF	2016-12-14	MSCI TIAA ESG USA Large-Cap Value 지수를 추적
	NUSC	Nuveen ESG Small-Cap ETF	2016-12-14	MSCI TIAA ESG USA Small-Cap 지수 추적
	ESGE	iShares Inc iShares ESG Aware MSCI EM ETF	2016-06-30	신흥국 투자 ESG ETF
	ESGD	iShares Trust iShares ESG Aware MSCI EAFE ETF	2016-06-30	북미 제외 선진국 ESG ETF
	EAGG	iShares ESG Aware US Aggregate Bond ETF	2018-10-23	채권 ESG ETF 중 가장 큰 규모의 ETF
친환경에너지/환경 기업	ICLN	iShares Global Clean Energy ETF	2008-06-25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투자
	TAN	Invesco Solar ETF	2008-04-15	태양광 관련 기업들로 구성
	QCLN	First Trust NASDAQ Clean Edge Green Energy	2007-02-14	미국 상장 기업 중 클린에너지와 관련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
Environment	SPYX	SPDR S&P 500 Fossil Fuel Reserves Free ETF	2015-12-01	S&P500 기업 중 화석연료를 사용하거나 비축하지 않는 기업들에 투자
	CRBN	iShares MSCI ACWI Low Carbon Target ETF	2014-12-09	선진국, 신흥국의 라지캡, 미들캡 중, 매출 대비 탄소 배출량이 적거나, 가능성이 존재하는 기업들이 투자
	KRBN	KraneShares Global Carbon ETF	2020-07-30	탄소배출권 원자재에 투자하는 ETF
Social	BLES	Inspire Global Hope ETF	2017-02-27	대형주 (시가총액 50억 달러) 중 성서적인 (Biblical) 측면에서 사회, 환경, 거버넌스 부분을 측정하여 투자
Governance	SHE	SPDR SSGA Gender Diversity Index ETF	2016-03-08	시가총액 상위 기업 중 임원과 이사회 구성하는 여성 비율을 고려, 상위 기업에 투자
	NACP	Impact Shares NAACP Minority Empowerment ETF	2018-07-18	소수 인종의 권익을 중시하는 기업들에 투자. 비영리의 ETF로 운용수익은 NAACP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에 기부됨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ESG 관련 DATA - 주요 ESG ETF의 성과와 자금 유출입

해외 – 미국 상장 주요 ESG ETF의 현황

구분	ETF	운용규모 ($mn)	수익률 (%)				자금 유출입 ($mn)		자금 유출입 강도 (%)	
			1주	1개월	3개월	6개월	1개월	2025 YTD	1개월	2025 YTD
Broad	ESGU	15,345	1.82	3.45	6.23	16.43	20	50	0.1	0.3
	ESGV	11,582	-0.03	1.11	3.82	14.22	-15	149	-0.1	1.3
	SUSL	1,011	2.31	4.00	7.30	17.86	47	-124	4.6	-12.2
	NULV	1,880	0.63	2.98	4.90	11.76	4	26	0.2	1.4
	NUSC	1,208	-1.47	-2.17	2.88	8.08	4	-52	0.4	-4.3
	ESGE	5,673	2.00	4.43	10.68	20.68	0	-77	0.0	-1.4
	ESGD	10,785	2.35	3.37	5.25	11.49	217	604	2.0	5.6
	EAGG	4,309	0.20	-0.33	1.36	3.41	67	532	1.6	12.3
친환경에너지/ 환경 기업	ICLN	2,098	-0.07	7.45	29.31	36.49	164	-4	7.8	-0.2
	TAN	950	-4.15	3.44	32.22	37.10	35	-111	3.6	-11.7
Environment	QCLN	537	-4.88	-5.74	19.68	33.76	16	-114	3.0	-21.2
	SPYX	2,438	0.17	1.44	4.21	14.59	26	70	1.1	2.9
	CRBN	1,001	2.05	3.01	6.02	15.06	-57	-153	-5.7	-15.3
	KRBN	169	1.97	3.08	12.72	15.94	-3	-54	-2.0	-32.1
Social	BLES	126	0.73	1.35	2.71	8.25	0	6	0.0	4.5
Governance	SHE	280	0.88	1.79	4.75	9.46	0	0	0.0	0.0
	NACP	57	-0.05	2.82	8.55	16.89	-1	-9	-2.1	-14.9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1.14 기준)

국내 상장 주요 ESG ETF의 현황

ETF	운용규모 (억원)	수익률 (%)				자금 유출입 (억원)		자금 유출입 강도(%)	
		1주	1개월	3개월	6개월	1개월	2025 YTD	1개월	2025 YTD
KODEX MSCI Korea ESG유니버셜	121	5.55	18.22	35.58	70.01	0.0	-20.8	0.0	-17.2
FOCUS ESG 리더스	147	5.73	15.78	18.50	41.87	0.0	50.0	0.0	34.1
KODEX 200ESG	546	5.61	20.24	39.08	73.39	0.0	-65.1	0.0	-11.9
KBStar ESG 사회책임	997	5.56	21.02	43.11	76.88	25.3	-1,811.8	2.5	-181.8
TIGER MSCI Korea ESG유니버셜	114	5.53	18.03	35.04	68.64	0.0	3.8	0.0	3.3
TIGER MSCI Korea ESG리더스	131	6.03	26.87	47.71	88.59	0.0	-39.2	0.0	-30.0
KODEX 탄소효율그린뉴딜	339	5.63	16.31	30.99	61.45	0.0	-17.2	0.0	-5.1
TIGER 탄소효율그린뉴딜	140	5.62	15.97	30.52	59.96	0.0	-10.5	0.0	-7.5
HANARO 탄소효율그린뉴딜	125	5.60	16.22	30.87	60.37	0.0	0.0	0.0	0.0

자료 :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2025.11.14 기준)
주: KRX 탄소효율그린뉴딜 지수 추종의 ETF들은모두 2021년 2월 4일 상장으로 2021년 YTD 자금 유출입은 상장 이후 흐름임

ESG News Clipping

기업 ESG 뉴스

ESG

(2025.11.04) 4대 금융지주, ESG평가서 '환경·소비자·이사회'서 강점 - ESG경제
탄소감축 목표·소비자 보호제도·경영진 평가제도 등 실질적 제도화
위원회 중심으로 거버넌스 확립

E (환경)

(2025.11.03) 유럽 트럭업계, "배출 규제 완화해 달라"…2030년 전기트럭 판매 최대 27% 감소 우려 - Impact-on
업계, "목표는 옳지만 달성은 어렵다"…인프라 구축이 우선돼야 주장
T&E, "유럽 탈탄소 계획을 뒤집는 행위" 반박

(2025.11.06) "시멘트 배출 85% 줄인다"…캐나다 큐라, 전기화학 분해로 '가열 공정' 대체 - Impact-on
기존 가열 공정을 대체하는 전기화학 분해 기술의 등장
시멘트 배출 감축과 산업 적용 가능성의 교차점

(2025.11.06) 토탈에너지스 "에너지 전환, 감축효율 중심으로"…'탄소차익' 새 포트폴리오 부상 - Impact-on
"에너지 안보 우선 기조에 친환경 전환 지연…
석유·가스 '지속 성장' 예측
친환경 에너지 전환 지연 움직임…'탄소 차익'이 새로운 해법으로

(2025.11.07) 현대 제네시스, 영국서 '스마트 홈 충전' 잔출…EV 경험경제 본격화 - Impact-on
영국 전역 제네시스 고객 대상 '스마트 홈 충전' 지원
전동화 전환의 '경험경제' 단계 진입

(2025.11.10) 수소차, 세계는 접는데 한국만 '성장 중'…보조금의 힘? - Impact-on
한국만 늘어난 수소차 판매, 보조금 없이는 시장 형성 어려워
산업정책이 만든 '수소차 신화', 경제성 없는 완고한 베팅인가
현대차의 수소차 사업, 선업정책의 상징?

(2025.11.10) 구글, 아마존 재조림 기업과 연 20만톤 탄소크레딧 계약 체결 - ESG경제
REDD 신뢰성 논란 속 복원형 방식 채택
탄소 크레딧 가격 상승, 수요는 공급 초과

(2025.11.03) 올해의 기후테크 스타트업…탄소나노튜브 혁신으로 주목받은 덱스매트 - Impact-on
탄소 기반 신소재 '갤보른', 구리·강철 대체 가능성 주목
셸·미 에너지부 등 투자…차세대 탈탄소 소재 기업 부상
'트렐리스 25' 다른 부문 후보 기업들 4곳:
- 에너지 부문: 아모비아(Ammobia),
- 탄소 부문: 플래닛 세이버스(Planet Savers),
- 자연 부문: 에어빌드(Airbuild),
- 운송 부문: 포톤 마린(Photon Marine) 등

(2025.11.07) 기후전환 채권, 탄소 고배출 산업에 금융 통로 연다 - ESG경제
ICMA, 철강·시멘트·석유 등 산업 전환 프로젝트에 공식 금융경로 마련
2050년까지 30조 달러 투자 필요…"검증된 탈탄소 계획이 성장 동력"

(2025.11.11) 해운 배출 역대 최대…EU, 탄소가격제 확대 압박 직면 - Impact-on
EU 해운 배출, 교역 둔화 속에서도 역대 최대치 기록
MSC, 1560만톤으로 최대 배출…화석연료 수송선 비중 여전

G (지배구조)

(2025.11.10) 정현호 퇴진 이후 '뉴삼성'의 인적쇄신…이재용 회장의 '결단' 어디까지 - ESG경제
위기 관리에서 AI시대 혁신 경영으로 전환 결단
관료주의 조직문화 타파 위한 인적 쇄신 기대
글로벌 경영자 출신 이사회 영입도 지켜볼 대목

정책 ESG 뉴스

ESG

(2025.11.04) ISSB, 공시 '글로벌 패스포트' 공식화…다국적 기업 보고비용 줄인다 - Impact-on

- 40개국 참여, ISSB 공시 상호인정 체계 구축…국가 간 규제 불일치 완화 기대

(2025.11.04) "광물판 IEA 만든다"…18조달러 투자자, 글로벌 자원 거버넌스 재편 나서 - Impact-on

"불법 유통 감시·수요·공급 모니터링 필요"
10개년 비전·7대 목표 발표… ESG 기준 강화·투명한 광물시장 촉구
ESG 투자 흐름, 광물로 확산

(2025.11.05) 미국과 EU의 ESG 갈등 표면화...CSDDD 개정 표결 앞두고 '정치 이슈'로 - Impact-on

美 재계, 백악관에 "EU ESG 법 막아달라" 서한
EU 집행위 부위원장, "규제 완화는 어둠으로의 회귀"
EU 내에서도 반발... 단순화 및 옴니버스 수정안 표결 예정
ESG, 대서양 양쪽서 '정치 이슈'로

(2025.11.06) 미 16개주 법무장관, MS · 구글 · 메타에 "EU 지속가능성법 따르지 마라" 경고 - Impact-on

16개 주 법무장관, "EU ESG 규제는 미국법 위반 소지"
"트럼프 정부 탈퇴한 파리협정 의무를 기업에 떠넘기는 행위"
미-EU ESG 패권 주도권 다툼

E (환경)

(2025.11.03) "2030년 해상풍력 14.3GW 달성 시 '양질의 일자리' 36만 개 창출" - 부산일보

허종식 의원, '해상풍력과 일자리 창출 효과' 보고서 발간
제조·건설업 각 35%,O&M 20%…20년 이상 고용 창출
"핵심 부품 해외 의존도 높아…국산화·인력 양성 시급"

(2025.11.03) RE100산단 특별법 추진…45개 법률상 인허가 일괄 처리 골자 - ESG경제

정부, RE100 특별법 제정 및 2030 RE100 산단 가동 목표
RE100 산단 입주 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폭넓은 인센티브 포함
45개 법률상의 인허가 일괄 처리 및 환경·재해영향평가 간소화 포함

(2025.11.04) 트럼프·시진핑의 '희토류 휴전', 청정기술에 어떤 영향 미치나 - Impact-on

"중국, 희토류 수출 통제 1년 유예"…시장에 안도감
G7 서방국가들, '핵심광물 동맹' 가속화
수출 증가 가능성 vs. 구조적 리스크 지속

(2025.11.04) 유엔, 글로벌 탄소시장 첫 공식 기준 승인…공신력 있는 감축실적 확보 길 열렸다 - Impact-on

감독기구 의장 "탄소감축 현실화 첫걸음"…메탄 감축 프로젝트 산정 기준 확정
산림·농업·산업 등 추가 기준 마련 예정…COP30서 후속 논의

(2025.11.06) 호주, 하루 3시간씩 태양광 전력 수백만 가구에 무료 제공 - 연합뉴스

낮 시간대 과잉 생산된 전력 소진·가구 생계비 부담 경감

(2025.11.11) ISSB, TNFD 흡수해 자연자본 공시 표준화…기업 공시범위 '기후→자연' 확장 - Impact-on

ISSB, TNFD의 LEAP 접근방식 활용한 자연자본 기준 추진
TNFD, ISSB기준과의 통합 도모…자체적 기술지침 작성 중단

G (지배구조)

(2025.11.12) 자사주 보유 기업 63%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 반대" - ESG경제

대한상의 조사, 찬성 15%그쳐…'처분 공정화' 대안으로 부각
응답기업 83% "자사주 신규취득 안 하거나 규모 줄일 것"

일반 ESG 뉴스

ESG

(2025.11.04) 빌 게이츠 "기후 재정, 잘못된 곳에 쓰이고 있다"…COP30 앞두고 파문 - Impact-on

게이츠의 3대 핵심 메시지
빌게이츠의 5대 배출 부문별 해법은?
"기후 예산, 선진국 중심에 머물러 있다"
"돈이 얼마나 모이느냐보다, 어떻게 쓰이느냐가 중요"

E (환경)

(2025.11.03) 노르웨이 국부펀드 "ESG 투자에 AI 전격 반영" - 한경비즈니스

'기후 리스크=재무 리스크'… 기관투자자의 투자 논리 전환
NBIM, 관여 활동 강화…투자·오너십·리스크의 삼각 통합
물리적 리스크와 자연자본, 그리고 AI

(2025.11.10) 탄소데이터도 회계처럼…글로벌 식품산업 PACT 표준 도입 확산 - Impact-on

글로벌 기업 100여곳 참여… "탄소 데이터, 이메일 주고받듯 간편"
하우굿, 식품 데이터 9만개 공개… 식품 부문 최초 합류
"탄소 데이터가 비즈니스 지표로 자리잡을 것"

(2025.11.10) ESG 회의론 속에서도…RQI 퀀트펀드, 시장보다 3%P 앞섰다 - Impact-on

ESG를 '비재무 신호'로 해석
ESG 열기 식는 와중의 차별화

(2025.11.04) 재생에너지 투자도 '전력 차단 리스크' 관리 시대…호주가 보여준 경고 - Impact-on

"재생에너지 차단 3배 급증…"태양광 폭주, 아시아 공통 리스크"
차단은 피할 수 없는 새로운 리스크…전력망 확충·시장 개편이 해법"

(2025.11.04) 이젠 일상이 돼버린 이상기후 용어들…'선상강수대' '돌아온 장마' '추석 장마' '10월 한파' - ESG경제

기후변화로 이상·극한기상과 재해 잇따르며
기상 '비정상의 일상화' 상징으로 자리잡아
일상생활과 직결된 기후변화의 상징 자리잡아
일부는 예보 어렵거나 인간 불편과 재난 불러

G (지배구조)

(2025.11.10) "정부가 사면 주가 폭등"…미 투자자들, '백악관 주식 사냥' 열풍 - Impact-on

정부가 기업 지분 인수… 시장의 '새 신호'
"트럼프처럼 생각하라" - 투자자들, 정부 매수 후보 찾기 경쟁
"해저광물도 유력"… 정부 개입에 베팅한 펀드들
"산업 보호인가, 정부 개입인가" 논란

(2025.11.14) 겉도는 'K-밸류업'…낙후된 기업지배구조에 발목 잡혀 - ESG경제

지배주주 중심 경영 관행 지속…상장사 참여율 13% 그쳐
ROE·PBR, 배당성향 등 주주환원 성과지표 여전히 하위권
"이사회 오너 영향력 아래 놓여…보상체계 여전히 불투명"
ISS 보고서 "지배구조 리스크 해소 없이는 한계 뚜렷" 경고

(2025.11.14) 배당소득 과세 완화에 반등한 코스피…금융·지주사株가 주도 - 연합뉴스

관련 종목·ETF 우상향…"자사주 소각 등 추가 정책도 기대"

Compliance Notice

■ **투자등급**

종목
- **매수** : 향후 12개월 동안 추천일 종가대비 목표주가 10% 이상의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 **중립** : 향후 12개월 동안 추천일 종가대비±10% 이내의 등락이 예상되는 경우
- **매도** : 향후 12개월 동안 추천일 종가대비 목표주가 -10% 이하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산업
- **비중확대** : 향후 12개월 동안 분석대상 산업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 대비 높게 가져갈 것을 추천
- **중 립** : 향후 12개월 동안 분석대상 산업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과 같게 가져갈 것을 추천
- **비중축소** : 향후 12개월 동안 분석대상 산업의 보유비중을 시장비중 대비 낮게 가져갈 것을 추천

- 본 자료는 당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자료로,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발간일 현재 본인 및 배우자의 계좌로 동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작성 담당자는 자료에 게재된 내용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의 괴리율은 감자 등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반영하여 계산하였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당사의 투자의견 비율 고지]

당사의 투자의견 비율			
기준일(20250930)	매수 : 87.41%	중립 : 11.89%	매도 : 0.7%

[당사와의 이해관계 고지]

종목명	LP(유동성공급자)	시장조성자			1%이상보유	계열사 관계여부	채무이행보증	자사주신탁 계약
	ELW	주식	주식선물	주식옵션				
JYP Ent.	-	-	-	-	-	-	-	-

2025-11-17

JYP Ent. : 과거 2년간 투자의견 및 목표주가 변동내역

추천일자	투자의견	목표주가(원)	괴리율(%)	
			평균주가	최고(저) 주가
2025-11-17	매수	100000		
2025-11-03	매수	100000		